



계란연구 및 소비촉진 대책

<미국>

— 청문회 끝내고 9월중 투표실시 예정 —

계란연구 및 소비자 정보법에 관한 청문회가 샌프랜시스코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이번 청문회는 다섯번에 걸쳐 있었는데 샌프랜시스코 청문회에서는 8명의 발언자가 모두 이 법에 찬성했다. 全美계란생산자연합회와 농무성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양체회사들이 발언을 했다. 지난 5월 19일 Dallas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발언한 3명의 발언자중 한사람인 텍사스 가금연합회의 “빌 파우워”씨는 텍사스 가금연합회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계수주의 96%를 소유

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이 법에 찬성했다고 한다. 全美계란생산자연합회 회장 Jim Fleming 씨는 50개 이상의 주및 지방양체조합이 계란연구 및 소비자 정보법의 제반 조치를 지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생산자가 이 법에 반대할 가능성성이 있으나 절대 다수가 이 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Fleming 씨는 이 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9월이나 10월경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일반계란 생산자들이 청문회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문회 기록을 7월 18일까지 공개할 계획이며 이기록은 연방당기소에서 팜프렛으로 발간되어 회원들의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 한다.

強制換羽와 制限給餉

<미국>

미국 죠지아大學에서는 산란계를 强制환우 시켰을 때 기 鷄群에 對하여 產卵을 다시 시작할 때부터 약 8週間까지는 사료급이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示唆하고 있다. 이로 强制환우를 끝낸 鷄群에 대하여 산란개개 時부터 市販配合사료를 1日 4時間밖에 給여하지 않은 制限區와 不斷급이로 自由롭게 섭취한 區를 對照比較한 시험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 成積은 制限區는 自由區보다 사료섭취량이 6.5% 적었으나 산란율이 낮았다. 즉 16週間의 조사에서 自由 섭취구의 산란율(헨하우스)이 66%임에 反하여 制限區는 61.4%였다. 또 平均 產卵에 있어서도 前者가 64gr인데 制限區는 63gr로 좀떨어졌고 폐사율은 制限區가 3.9%인데 比하여 自由區가 4.1%로 이것은 오히려 制限區가 약간 낮았다.

低蛋白 育成飼料로 經費절감

캘포니아大學의 研究팀은 採卵用 병아리의 育成飼料에 低단백사료(12%含有를 12~20週令에 8週간 먹인 것과 高단백사료(17.5%)를 굽여한 것을 比較한 결과 育成기간중의 사료섭취량에 있어서 前者は 9~10% 절감할 수 있었다는 報告書를 냈다. 節約額은 사료원료의 時價에도 관계되겠지만

8週間이면 약 15%정도의 節減이 가능할 것이라 한다. 그들이 테스트한 結果로는 20週令時 體重은 6~9%적어지며 이 差는 산란개시 후 10週令에도 역시 시작았으나 산란발기에는 정상 鷄보다 1/10~3/10파운드(15g~45g)의 체중이 가벼웠다.

初產日令은 7~10日 늦었으나

大鶏의 生산이 促進되었으므로 좋았고, 산란율, 雞質과 사료 섭취량, 폐사율에 미치는 영향等 문재點은 없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계란수입으로 곤경

<영국>

최근 영국농림성의 계란유통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의 계란이 영국으로 수입됨에 따라 영국의 채란업자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영국의 채란업계가 구주 공동시장 내에서의 자유경쟁의 복잡성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경쟁은 정말로 자유롭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란시장에 대한 이러한 경쟁은 프랑스 입법의 호혜무역을 금지해서라기 보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계란사업을 위해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나타났다.

부로일러 제한 급이

<미국>

김미설 부로일러의 產肉性을 最高로 높이기 위하여 사료를 無制限 주는 것이一般的인 상식이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이 方法에 대하여 疑問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어떤 方法에 依하여서든지 사료를 節約하기 위한 여러가지 試驗들이 여기 저기서 行하여지고 있으며, 산란계와 마찬가지로 좋은 成績을 내고 있는例도 있다. 이에 關한 미시시피大學의 見解를 招介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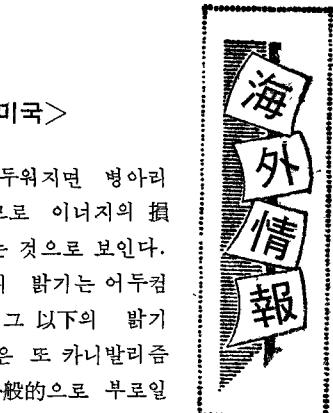
부로일러에 對하여도 최근에는 사료 가격의 양등 등으로 인하여 制限급이의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無窓鷄舍(인도우레스)內에서 부로일러를 育成할 때 照明과 暗黑(消燈)時間은 여러 가지로 바꾸는데 따라서 사료 섭취량(섭취시간)을 制限하는 시험이 最近試驗되고 있으나 照明時間은 꽤 짧게 하더라도 產肉性, 增體量에 좋을 成績이 나타난 試驗例가 提示되고 있다. 또 부로일러 生產者中에는 하루 몇번씩 給餌機의 사료를 비우게 하는 機械的인 方法으로 사료의 紿與量을 節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무창계사에서 點燈時間은 制限하여 사료를 節約하고자 할 때 明暗交互의 繼續照明이 좋았다는 試驗例도 있고 같은 밝기의 연속照明이 好結果를 나타냈다는 것도 있다. 點燈, 消燈의 시험으로 不良成績을 나타낸 것은低에너지飼料를 써서 消燈時間이 길었을 때에 나타났다. 그러나 最近의 부로일러 飼料는 高열量 사료이며 더욱이 短時間에 消化吸收하는 特徵이 있고 특히 펠렐사

료는 흡수가 빠르다. 消燈하여 어두워지면 병아리의 狀態는 움직이지 않고 쉬게되므로 이너지의 損耗를 줄이고 사료효율도 좋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창계사내의 照明光線의 밝기는 어두컴컴한 程度(1/2 후-트 캔들) 또는 그以下の 밝기가 發育에 最適인 것 같다. 이것은 또 카니발리즘等 惡習防止에도 도움을 준다.一般的으로 부로일러에 對한 光線의 영향은 發育促進效果는 없는 것 같으며 오히려 사료를 섭취하여 消化하는 효과가 고려된다. 틀림없이 光線은 벼슬等의 發育을促進하는 等 生理的 영향은 있으나 增體量의促進效果는 극히 적다. 지나치게 너무 밝은 환경은 오히려 發育을 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부로일러를 무창계사에서 육성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痕이 있거나 커-튼 정도의開放계 사가 많다. 때문에 이런 形態에서는 明暗을 人工的으로 設定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런 환경



에서 實行하기 쉬운 제한급이법은 하루 몇번씩 급이기의 사료를 비우는 時間을 설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野外試驗 결과로 2時間 사료를 주고 그다음에는 2時보다 길어지지 않는 時間의 급이를 하는 方法으로 할 때 마이너스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급이기를 모-타와 타임시계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달아올리는 方法이 있지만 (이것은 아-반大學에서 시험한 것이다) 사료도 절약되고 增體量도 떨어지지 않아 성적이 좋게 나왔다.

종계의 제한급이

<프랑스>

종계의 어린 숫놈에 사료제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랑스의 연구진들이 최근 3가지 사료급이법의 시험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1區는 對照區로써 自由 섭취 2區와 3區는 成熟期 40週令에 達하기 까지의 사료 制限區로 하였다. 制限區는 5週令까지는 自由 섭취시키고 그후는 日量을 달아서 주었다. 2區의 사료는 全期間中蛋白 15%의 사료로 3區는 5週令까지는蛋白 20%, 其後는 15%의 사료였다.

이 結果 17週令까지는 制限區의 發育이 늦어졌으나 그후에는 體重差는 줄어들었고 制限區의 숫닭(種鷄)은 1日當 30首의 授精(人工授精)에 충분한 精液量을 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研究陣은 위와 같은 方法으로 제한을 할 때 종계 숫닭의 授精能力은 충분하고 더욱이 17週令까지의 사료 섭취량은 자유 섭취량의 약 50%정도였으므로 분명히 육성사료가 절약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계산물 생산높이기 위해 사료공장 증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작년에 닭고기와 계란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도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작년도 부로일러 생산량이 약 750만수입에 비해, 75년도에는 약 1,500만수 가량 생산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금년 계란생산량은 약 1억2천만개에 달할 것으로 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부로일러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년에 외국으로부터 약 1만5천 M/T의 닭고기를 수입할 것이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닭고기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화란, 멘마크, 불가리아, 프랑스 및 서독 등이며 반면 계란을 베바논에서 공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 국내 양계산물 생산을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후사료 대금의 50%를 지불하는 등 사료업계를 보조하고 있으며

사료 판매 및 구매는 농업개발은행(ABB)을 통해 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사료공장이 5개에 불과하였으며 농후사료를 도입하여 수수와 옥수수를 배합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사료공장 하나가 가동되어 여러가지 원료를 배합하여 배합사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년내에 사료공장을 2개 이상 허가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료공장의 총 생산능력은 해마다 5만톤~7만5천톤 가량 증가된 것이다. 현재 사료는 톤당 1,200리알(사우디아라비아화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중 50%는 정부가 지불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부로일러와 산란계를 사육하는 큰 농장이 30개소가 있는데, 단일 농장으로서 가장 큰곳은 년간 1천만수의 부로일러와 계란 6천만개를 생산한다. 197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5~20%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도 계란 수출 실적 16% 신장

<레바논>

식탁계란(table egg) 생산이 중동지역에서의 양계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무성이 발표한 1974년도의 연례보고에 따르면 레바논의 총 계란생산량은 581,219,000개였으며 이것은 전년도 대비 20%의 성장을 이룬것이다. 또한 인접 아랍국가들에게 수출한 식탁계란은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계란에 비하여 부로일러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으로서 약 1,690만수였다. 부로일러 생산이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주로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촉진과 년간 10kg정도의 국민 1인당 소비증가를 위해 실질적인 노

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작년도 레바논에서 생산출하한 초생추수수는 약 2,920만수였다. 레바논은 아랍 3국가에 초생추와 종란을 수출하는데, 이를 아랍국가들은 현재 자체 양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시리아 및 요르단 등이 레바논의 계란을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들이다. 레바논은 1974년도의 계란 및 기타 가금수출 실적에 있어 획기적인 기록을 남겼다. 계란수출 실적이 16%나 신장되었는데 그중 식탁계란(table egg)는 가장 중요한 수출대종 품이다. 반면 닭고기 수출은 매우 적었는데, 이것은 레바논이

국제적인 부로일러 가격과 경쟁 할 수 없는 생산원가의 상승 때문이다.

현재까지 칠면조산업은 레바논에 아직 개발되어있지 않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칠면조 고기에 대한 확고한 시장이 없다. 작년도 칠면조고기 중 81,767kg을 수입했으며 28,448kg을 국내에서 생산하였다.

